

5월 금융시장 브리프

2025. 5. 2.

[4월 국내 금융시장 동향]

- 4월중 금융시장은 국내 정치불안 완화와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화와 주가가 반등하였고, 채권금리는 성장률 하향조정과 기준금리 인하기대로 하락


[최근 현안: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 미 국채금리 급등 배경 점검평가]

- 올 들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위험회피심리(risk-off)로 미국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 달러와 국채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트리플 약세 현상이 뚜렷
-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 시장의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함으로써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경기침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
- (안전자산 통화로 유로화, 엔화 재부각)**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가 초약세를 보인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 유로에 대한 수요는 집중
-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 트럼프 취임 이후 글로벌 위험회피심리(risk-off) 강화, 미·중 관세전쟁 여파 등의 영향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크게 축소
- 미 국채금리는 4월 초순에 나타났던 금리 발작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당분간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장기물·단기물 간 차별화도 지속될 전망
- 달러 약세 추세는 트럼프 관세정책 관련한 불확실성과 미·중갈등 심화 우려가 지속되는 한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반면, 선진국 통화로 구성된 달러인덱스(DXY)의 초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절상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5월 금융시장 전망]

-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하여 5.2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2.75% → 2.50%)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에도, 물가재반등 위험을 감안하여 5.6~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상단 4.50%)에서 유지할 전망
- 국고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추경안 합의 등에 따른 물량부담에도 경기둔화에 의한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할 전망(국고채 3년물: 4.30일 2.27% → 5월말F 2.25%)
- 원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달러(DXY) 초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 부진 장기화, 트럼프발 수출 약화 우려를 반영하여 1,420~1,440원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원달러: 4.30일 1,427원 → 5월말F 1,430원)
- 국내 증시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상호·품목별)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익전망치 개선, 수출증가율 둔화 등 엇갈리는 지표를 확인하며 2,500pt대 박스권에서의 혼조세 전망(KOSPI: 4.30일 2,557 → 5월말F 2,520)

작성자: 경영전략연구실 허문종 센터장(02-2173-0568), 서보익 센터장(02-2173-0532)
허지수 책임연구원(02-2173-0556), 김민서 인턴(02-2173-0566)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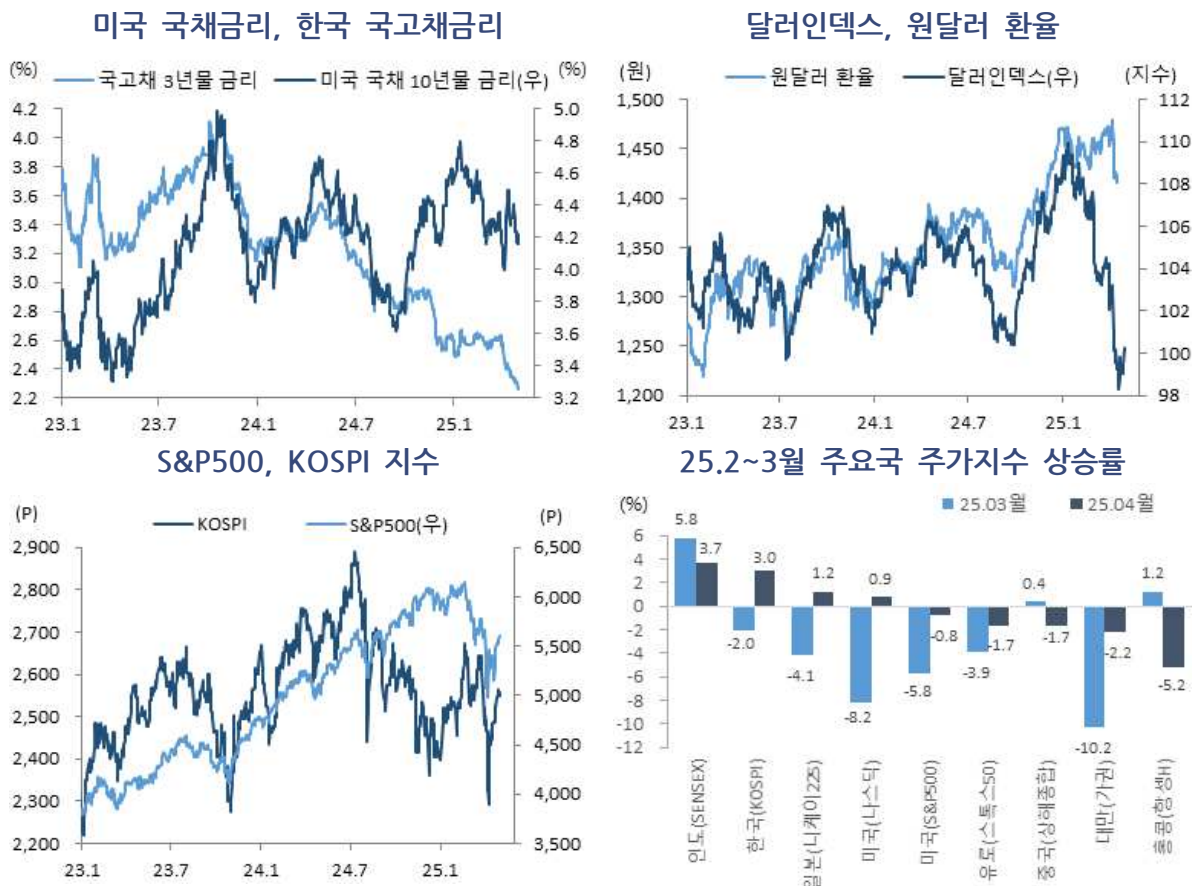


I.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참고 1: 4.17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	2
II. 최근 금융시장 주요 현안	3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 미 국채금리 급등 배경 점검	3
III. 5월 금융시장 전망	7
[붙임 1]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10
[붙임 2] 국내외 금리·환율·주가 추이	11

I. 최근 금융시장 동향

■ 4월중 금융시장은 국내 정치불안 완화와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화와 주가가 반등하였고, 채권금리는 성장률 하향조정과 기준금리 인하기대로 하락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현재판결과 미 국채금리 하락세에 힘입어 2.5%를 하회하였으며, 이후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확대로 내림세를 지속(4.1일 2.54% → 4.30일 2.27%)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상호관세 발효로 1,480원대(정규장 기준)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90일 유예 결정과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1,410원대까지 하락한 후 1,420~1,440원 안팎에서 등락(4.1일 1,460원 → 4.30일 1,427원)
- KOSPI는 미·중 상호관세 분쟁이 심화되어 2,300pt를 일시 하회했으나(4.9일 2,293pt), 이후 국가별 협상 과정에서의 트럼프 관세정책 완화 기대감이 형성되며 2,500pt대로 반등(4.1일 2,521 → 4.30일 2,557)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참고 1: 4.17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내용]

■ (4월 통화정책 결정문의 주요 변화 내용)

- 직전(25.2월) 금통위에 비해 성장 전망치의 하향조정(기존 1.5%를 하회)을 언급

	2월 금통위	4월 금통위
성장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 시기·규모와 관련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

	2월 금통위	4월 금통위
종합판단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
향후 통화정책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

■ 총재 기자회견 주요발언

① (금리동결 배경) 경기상황을 보면 금리인하가 필요하나,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변동성도 높은 점을 고려

-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2분기 이후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어 25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임

* 이창용 총재는 1분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내수가 부진했으며, 탄핵 선고 이후 정치불확실성 지속 하락에도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

- 최근 약달러 기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불안정성 잔존 등으로 더디게 하락

② (통화정책 전망)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에 대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직전 금통위의 2명에 비해 확대)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 경제전망을 수정·발표하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

II. 최근 현안: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 미 국채금리 급등 배경 점검

1. 최근 달러화, 미 국채금리 동향

■ 올 들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위험회피심리(risk-off)로 미국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 달러와 국채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트리플 약세 현상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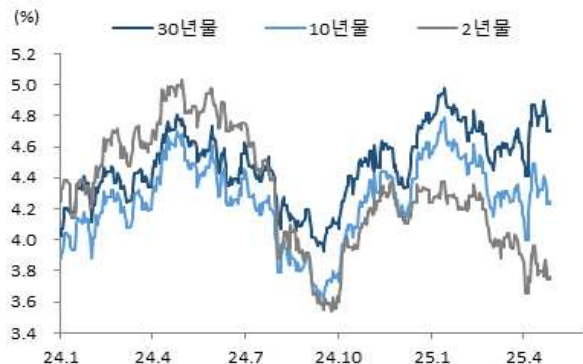
- * 미국의 주식·채권·통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triple) 약세’는 금융시장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70년대 후반 오일쇼크, 87.10월 블랙먼데이, 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
- * 트럼프 행정부는 4.2일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관세(10%, 4.5일 발효)와 한국(25%)을 포함한 무역적자국 (56개국+EU)을 대상으로 10~50%의 상호관세(4.9일 발효)를 발표. 상호관세의 경우 발효 당일인 4.9일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대중 관세율(145%)은 중국의 보복 대응을 이유로 대폭 인상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들어 주요 경제지표 둔화로 하향안정되는 추세였으나,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4.4일(4.0%) 저점을 형성한 후 일주일만에 4.5%까지 단기 급등
 - * 이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주요국들과 협상에 돌입하면서 추가 상승을 멈추고 4.2%대(4.25일 4.24%)로 반락
 - * 4월초에 있었던 미 국채 금리 발작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장기물(30년·10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단기물(2년물)은 경기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여 상승폭이 제한
-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달러화(DXY)는 22.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 연초 110대까지 고점을 높였던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탈달러 기조가 심화되며 4월 들어 98대까지 급락
 - *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달러인덱스(DXY)는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주요 선진 6개국 통화를 경제 규모에 따라 반영

S&P500,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국채금리



자료: B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달러화 약세, 미 국채금리 급등의 배경 요인

■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 시장의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함으로써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경기침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

- 파월 연준 의장은 4.16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라는 양대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준에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 작년 하반기 2%대로 낮아졌던 미국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1년, 미시건대)은 올해 1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세로 전환되어 4월에는 6.5%까지 급등(이는 코로나19 당시 고점인 22.4월 5.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 IMF는 25.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정책 실행 당사국인 미국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25년 GDP 성장률 전망치 -0.9%p, CPI 상승률 전망치 +1.1%p)
- 특히, 상호관세 발표(4.2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정책 행보와 최근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제기 등은 미 국채와 달러화에 추가 약세요인으로 작용
 - * 트럼프가 최근 잇달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고, 물가 급등에 따른 불만 등을 반영하여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WP)까지 하락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MF(25.4월)의 25년 주요국 GDP, CPI 전망치 조정폭



자료: IMF,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안전자산 통화로 유로화, 엔화 재부각)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가 초약세를 보인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 유로에 대한 수요는 집중

- 유로화는 ECB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호관세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독일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역내 물가 안정과 통화 완화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개선 기대를 반영하여 최근 초강세

- * ECB는 4.17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작년 6월 첫 금리 인하 이후 7번째, 작년 9월 이후 6번째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
- * 3월 독일 상하원에서 통과된 재정 개혁안은 인프라 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5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기존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 엔화는 물가·임금 상승에 따른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로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안전자산 대체 수요, 트럼프 행정부의 엔저 현상 시정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4월 달러당 140엔까지 절상폭이 확대
 - *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발표한 금년 춘투의 첫 임금타결안에 따르면 전체 기업 평균 임금인상률은 5.46%로 91년(5.6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 트럼프 취임 이후 글로벌 위험회피심리(risk-off) 강화, 미·중 관세전쟁 여파 등의 영향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크게 축소

- 트럼프 취임 이후 주식 등 주요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부 대형 헤지펀드 등이 마진콜 압박에 직면하여 그동안 가격이 상승한 미 국채를 일정 부분 처분한 것으로 관측(FT)
-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했을 가능성도 제기(Reuters)
 - * 시장에서는 실제 4월 초순에 있었던 미 국채 금리 발작 현상이 중국의 미 국채 매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채권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으로 최근 미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장기금리 상승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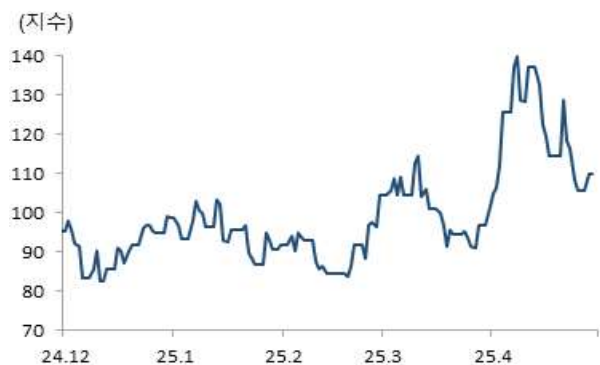
중국의 미 국채, 금 보유규모



주: 금은 25.3월, 미 국채는 25.2월까지 데이터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채권시장 변동성지수(MOV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향후 달러화, 미 국채금리 전망

■ 미 국채금리는 4월 초순에 나타났던 금리 발작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당분간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장기물·단기물 간 차별화도 지속될 전망

- 장기물은 관세정책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낮아지는 반면, 단기물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여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 *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관세정책의 부작용이 물가보다 경기둔화 우려를 키울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할 전망
 - * 4.28일 CME FedWatch는 연준이 올해 네 차례(6·7·10·12월 각각 25bp씩) 인하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

■ 달러 약세 추세는 트럼프 관세정책 관련한 불확실성과 마·중갈등 심화 우려가 지속되는 한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 경험(중국 협상 이행에 대한 불신)과 중국의 내부시각(미국 관세 부과를 내부 결집의 계기로 활용) 등으로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면서 단기협상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
 - * 전문가들(4.10일 연구소 주최 자문회의)은 마·중 갈등 종료시점은 미국 소비자의 물가부담 여력에 달려있으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측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
 - *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내수 진작·금융시장 개입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내 여론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버티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

■ 반면, 선진국 통화로 구성된 달러인덱스(DXY)의 초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절상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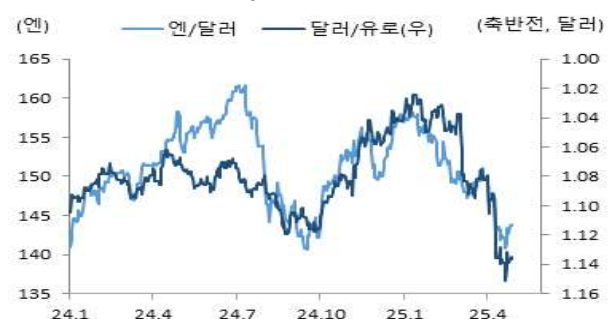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기준환율 상향 고시와 창구지도를 병행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당시인 18~19년과 비교할 때 아직은 용인 속도가 완만한 수준
- 지난해 글로벌 달러(DXY)와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였던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탄핵 관련 정치불안과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올해 3월 이후 디커플링이 심화

트럼프 취임(1.20일) 이후 주요국 통화 절상·절하폭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I. 5월 금융시장 전망

- 5월은 한은 추가 금리 인하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약세에도 국내 성장우려로 하락폭이 제약되며, 주가는 호재와 악재가 상충되며 혼조세 전망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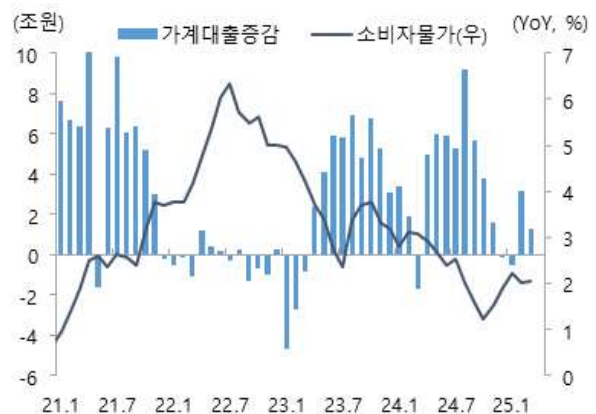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하여 5.2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2.75% → 2.50%)할 것으로 예상
 - 시장은 당일 발표하는 한은 수정 경제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보임
 - *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25.1월 -0.5 → 2월 3.1 → 3월 1.8 → 4월 3.8
 - *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6.8% 감소(대미 반도체 수출은 -31%)
- 미 연준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에도, 물가재반등 위험을 감안하여 5.6~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상단 4.50%)에서 유지할 전망
 -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24.12월 3.2 → 25.1월 3.3 → 2월 3.1 → 3월 2.8
 - * 비농가고용 증감(만명): 24.12월 32.3 → 25.1월 11.1 → 2월 12.7 → 3월 22.8
 - * ISM제조업(기준선=50): 24.12월 49.2 → 25.1월 50.9 → 2월 50.3 → 3월 49.0
- 국고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추경안 합의 등에 따른 물량부담에도 경기둔화에 의한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할 전망
 - * 국회는 5.1일 13.8조원(산불 피해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0.2조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0.8조원) 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
 - *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기말, %): 25.2월 2.50 → 3월 2.57 → 4월 2.27 → 5월F 2.25

미국 비농가고용 증감,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산자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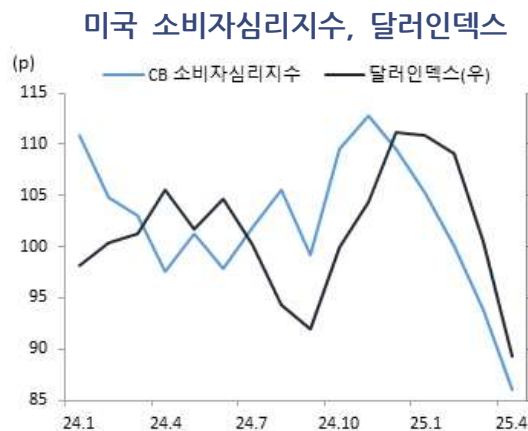
한국 가계대출 증감,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금감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환율]

- 원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달러(DXY) 초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부진 장기화, 트럼프발 수출 악화 우려를 반영하여 1,420~1,440원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
 - * 미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컨퍼런스보드)는 86.0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0.5월(86.6) 이후 최저치를 기록
 - *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25.1월 3.3 → 2월 4.3 → 3월 5.0 → 4월 6.5
 - * 도이체방크는 향후 5년간 달러유로 환율이 1.30달러 수준까지 오르며 강달러 시대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5년말 1.19달러로 유로화 강세를 전망
 - * 4.17일 우에다 총재는 미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경제와 물가가 분기 보고서의 예측과 일치할 경우 BOJ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
 - * 달러인덱스(기말) : 25.1월 108.4 → 2월 107.6 → 3월 104.2 → 4월 99.3
 - * 원달러 환율 전망(기말, 원): 25.1월 1,454 → 2월 1,460 → 4월 1,427 → 5월F 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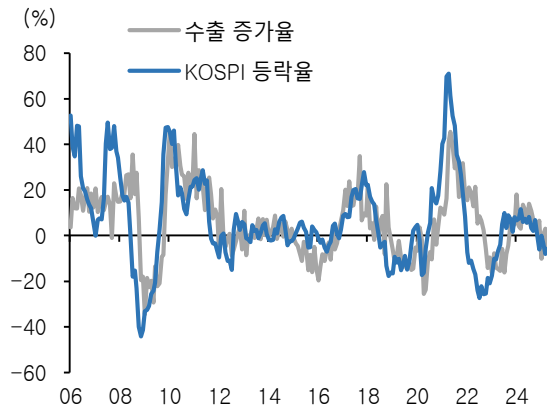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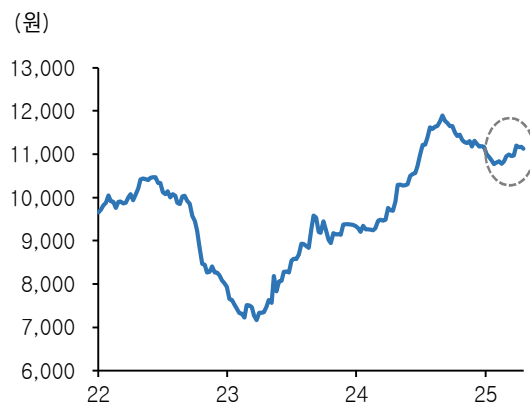
- 국내 증시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상호·품목별)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익전망치 개선, 수출증가율 둔화 등 엇갈리는 지표를 확인하며 2,500pt대 박스권에서의 혼조세 전망
 - KOSPI 12m Forward EPS 추정치는 6개월간 감소세에서 벗어나 25.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이 4월부터 가시화되면서 내수·수출 동반 부진 우려가 확대
 - * KOSPI 지수 전망(기말, pt): 25.3월 2,481 → 25.4월 2,557 → 5월F 2,520

한국 수출증가율과 KOSPI 수익률



자료: 관세청,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OSPI 12m-forward EPS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금융시장지표 전망

항목		단위	2022	2023	2024	25.4월	25.5월(F)	12월(F)
기준금리	미국	기말, %	4.50	5.50	4.50	4.50	4.50	3.75
	한국	기말, %	3.25	3.50	3.00	2.75	2.50	2.00
	유로존	기말, %	2.50	4.50	3.15	2.40	2.40	2.10
	일본 ¹⁾	기말, %	-0.10	-0.10	0.25	0.50	0.50	1.00
	중국 ²⁾	기말, %	4.30	4.20	3.60	3.60	3.60	3.10
국채금리	미국 10년	기말, %	3.87	3.88	4.53	4.16	4.15	3.90
	한국 3년	기말, %	3.72	3.15	2.60	2.27	2.25	2.00
	한국 10년	기말, %	3.73	3.18	2.86	2.56	2.50	2.25
	독일 10년	기말, %	2.57	2.02	2.37	2.44	2.40	2.20
	일본 10년	기말, %	0.42	0.61	1.10	1.32	1.40	1.60
환율	원/달러	기말, 원	1,265	1,288	1,472	1,427	1,430	1,400
	달러/유로	기말, 달러	1.071	1.104	1.035	1.133	1.145	1.170
	엔/달러	기말, 엔	131.1	141.0	157.2	143.1	142.0	140.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90	7.10	7.30	7.27	7.25	7.20
주가	S&P500	기말	3,840	4,770	5,882	5,569	5,560	6,300
	KOSPI	기말	2,236	2,655	2,399	2,557	2,520	2,800
	KOSDAQ	기말	679	866	678	717	710	900

주: 1) 상단 기준, 2) 5년물 LPR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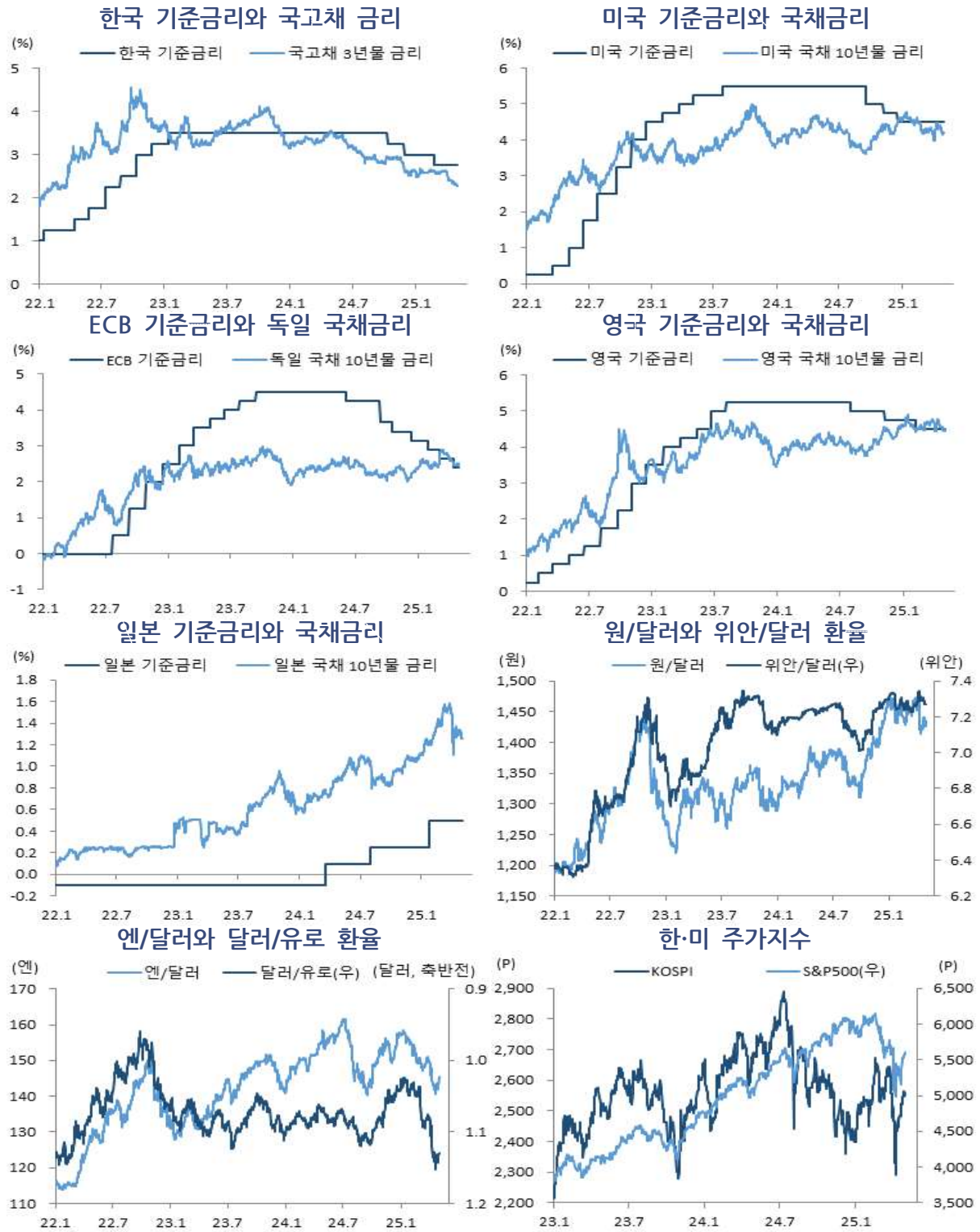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1 |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국가(지역)	항목	단위	24.3분기	4분기	25.1분기	24.12월	25.1월	2월	3월	4월
한국	GDP	전기비, %	0.1	0.1	-0.3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8	-0.4	0.7	0.5	-0.6	1.9	-0.3	-
	서비스업생산	전기비, %	-0.2	0.6	0.3	1.3	-0.9	0.9	-0.3	-
	광공업생산	전기비, %	-0.6	1.5	0.7	3.9	-2.9	1.4	0.0	-
	제조업PMI	기준선=50	50.5	49.3	49.8	49.0	50.3	49.9	49.1	-
	수출	전년동기비, %	10.5	4.2	-2.1	6.6	-10.1	0.7	3.0	3.7
	취업자	전년동기비, 만명	14.6	5.1	15.5	-5.2	13.5	13.6	19.3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1	1.6	2.1	1.9	2.2	2.0	2.1	2.1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2.0	1.8	2.0	1.9	2.0	1.9	2.1	2.4
	은행 가계대출	전기비, 조원	20.2	5.3	4.0	-0.1	-0.5	3.2	1.3	-
미국	GDP	전기비연율, %	3.1	2.5	-0.3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4	1.8	0.4	0.8	-0.9	0.0	1.5	-
	개인소비지출	전기비, %	1.3	1.6	1.3	0.9	0.0	0.6	0.7	-
	산업생산	전기비, %	-0.1	-0.3	1.4	1.1	0.2	0.9	-0.3	-
	ISM제조업	기준선=50	47.3	48.2	50.1	49.2	50.9	50.3	49.0	48.7
	ISM서비스업	기준선=50	52.5	54.1	52.4	54.0	52.8	53.5	50.8	-
	비농가고용	전기비, 만명	39.9	62.8	45.6	32.3	11.1	11.7	22.8	-
	실업률	%	4.2	4.1	4.1	4.1	4.0	4.1	4.2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7	2.7	2.7	2.9	3.0	2.8	2.4	-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3.3	3.3	3.1	3.2	3.3	3.1	2.8	-
유로존	GDP	전기비, %	0.4	0.2	0.4	-	-	-	-	-
	(독일)	전기비, %	0.1	-0.2	0.2	-	-	-	-	-
	(프랑스)	전기비, %	0.4	-0.1	0.1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0	0.4	-	0.0	0.0	0.3	-	-
	산업생산	전기비, %	-0.2	-0.3	-	-0.9	0.6	1.1	-	-
	수출	전년동기비, %	2.3	1.1	-	2.9	2.8	6.2	-	-
	제조업PMI	기준선=50	45.5	45.4	47.6	45.1	46.6	47.6	48.6	-
	실업률	%	6.3	6.2	-	6.2	6.2	6.1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2	2.2	2.3	2.4	2.5	2.3	2.2	-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2.8	2.7	2.5	2.7	2.7	2.5	2.4	-
영국	GDP	전기비, %	0.0	0.1	0.0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3	-0.7	1.6	-0.4	1.3	0.7	0.4	-
	산업생산	전기비, %	-0.3	-0.5	-	1.0	-0.5	1.5	-	-
	수출	전년동기비, %	-3.3	-12.1	-	-11.5	-5.8	-3.6	-	-
	제조업PMI	기준선=50	52.0	48.3	46.7	47.0	48.3	46.9	44.9	45.4
	실업률	%	4.3	4.4	0.0	4.4	4.4	-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0	2.5	2.8	2.5	3.0	2.8	2.6	-
일본	GDP	전기비, %	0.4	0.6	-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8	0.2	1.5	-0.2	1.2	0.4	-1.2	-
	산업생산	전기비, %	0.3	0.4	-0.7	-0.3	-1.1	2.3	-1.1	-
	수출	전년동기비, %	4.5	3.2	7.4	2.7	7.3	11.4	4.0	-
	제조업PMI	기준선=50	49.5	49.3	48.7	49.6	48.7	49.0	48.4	48.7
	실업률	%	2.5	2.5	2.5	2.5	2.5	2.4	2.5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8	2.9	3.8	3.7	4.0	3.6	3.6	-
중국	GDP	전년동기비, %	4.8	5.0	5.4	-	-	-	-	-
	소매판매	전년동기비, %	2.7	3.8	3.6	3.7	0.0	3.0	4.9	-
	산업생산	전년동기비, %	5.0	5.6	6.8	6.2	0.0	5.9	7.7	-
	고정자산투자	연누적, 전년비, %	3.4	3.2	4.2	3.2	0.0	4.1	4.2	-
	수출	전년동기비, %	5.9	9.9	5.8	10.7	6.0	-3.0	12.4	-
	제조업PMI	기준선=50	49.4	50.2	49.9	50.1	49.1	50.2	50.5	49.0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0.5	0.2	-0.1	0.1	0.5	-0.7	-0.1	-
글로벌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	-1.8	-2.6	-2.3	-2.3	-2.3	-2.1	-2.5	-
	교역량	전년동기비, %	2.9	2.9	-	3.1	4.5	3.0	-	-
	제조업PMI	기준선=50	49.3	49.7	50.3	49.6	50.1	50.6	50.3	-

자료: LSE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2 | 국내외 금리·환율·주가 추이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